

蘭 丁 山 房





서가풍경

무소유의 정신 깃든 동심의 세계

아동문학가 어효선옹의 서가

역사는 이미 사라진 과거인의 삶과 기억을 되살리는 하나의 방식이지만, 때론 살아서 역사가 되는 인물이 있다. 아동문학가 어효선옹(76)이 그렇다. 그에게 한국 아동문학계의 산 증인이란 이름이 따라붙는다. 그가 단지 회의를 훌쩍 넘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다. 1949년 아동문단에 나온 이후 반세기 넘게 아이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들려줘왔기 때문이다.

'난초를 가꾸는 사람'이란 뜻의 호를 딴 서재 '난정산방'(蘭丁山房)에 들어서면, 난초의 향기는 간데 없고 색 바랜 책들이 내뿜는 고졸한 훈향이 꼭 차 있다. 그 속에서 산방 주인은 누런 원고지를 앞에 두고 중세의 '필경사'처럼 앉아 있다. 아이들에게 옛이야기 들려주듯 자신의 지나온 시절을 풀어내는 사이, 밖에선 주인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 개가 경경 깃는다.

난정산방에서 주인의 보살핌을 받던 수천여권의 책은 이미 10여년 전 한 대학으로 '집단지주'했다.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선현의 말씀을 본받아 평생 모은 책을 아낌없이 춘천교대에 기증한 것이다. 현재 난정산방에는 동시집 《봄 오는 소리》(교학사) 등 10여권의 저서와 《아이들 보이》 《학생》 《려광》 등 아동문학 초기 잡지 등이 그의 노년을 지켜보고 있다.

산방의 조금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뒤로 하고 현관문을 밀치려는데 오른쪽 벽에 걸린 동요 환편이 눈길을 붙잡는다. "우리를 마음에 빛이 있다면 / 여름엔 여름엔 파랗 거예요"로 시작하는 그의 동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다. 문을 열어젖히자 파란 나뭇잎이 눈앞으로 달려든다. - 박천홍 기자

